



차현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새보람

SAEBORAM



필리핀·호주 해외연수 기행기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www.kappd.or.kr

제225호

2011년 6월

장애인차별이 없는 세상을 향해!!

2008년 4월 11일 우리의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수많은 차별의 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힘을 냅시다. '장애인당사자' 스스로의 힘으로 차별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면 차별은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일구어 나갑시다.

내가 참으면 차별은 계속됩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법인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6월 3일(금)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한 '제24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에서 관솔범(전체대상 수상자) 군이 클라리넷을 연주하고 있다.

지적장애 2급 관솔범, 장애인예술제 '대상' 수상

심사위원 "풍부한 감수성을 담은 훌륭한 연주" 극찬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지난 6월 3일(금)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소재한 이룸센터(이룸홀)에서 '제24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이하 예술제)'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본 예술제는 장애인들의 예술적 소질과 재능을 개발하여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예술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88년부터 개최돼왔으며, 국내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작년까지 치러진 23회의 대회동안 총 30만여명이 참가해 국내 최대의 전통과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특히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 등을 발굴하며 수많은 장애인 예술인의 '등용문(登龍門)' 역할을 해 왔다.

이날 예술제에서는 음악부문의 경연대회와 사전 접수해 전 문가와 교수 등이 심사한 미술,

글짓기, 사진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식이 마련됐다.

대회 결과 음악경연에 참가한 관솔범(16세, 경기예술고등학교) 군이 이번 예술제의 '전체대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H.Rabaud의 곡 'Solo De Concours'을 클라리넷으로 연주한 관솔범은 "지적장애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감수성을 담아 훌륭히 연주해냈다"라는 정태봉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의 평가를 받으며 대상수상의 영예

를 안았다.

수상소감을 묻는 질문에 관솔범의 어머니는 "슬범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은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밖에 글짓기 부문에서는 서은자(여, 40세)씨, 미술은 고창균(남, 44세), 사진 임희원(남, 16세), 음악에서 김유경(여, 18세)

씨가 부문별 대상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를 개최한 지장협 김정록 중앙회장은 수상자 및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꿈과 열정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장애인예술인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당부하며 "지장협은 한국이 문화·예술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를 더욱 발전시켜 장애인 발굴과 등용에 힘 쓰겠다"고 약속했다. <2~3면 계속>

‘제24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화보



음악경연 심사중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정태봉 교수와 전상직 교수.

<사진 ①~⑥>6월 3일(금)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제24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의 음악경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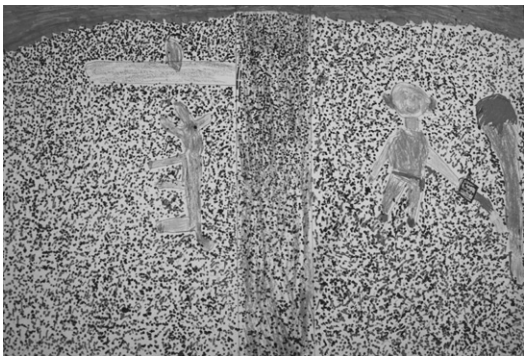
▶미술부문 최우수상 (보건복지부)을 수상한 박점수 씨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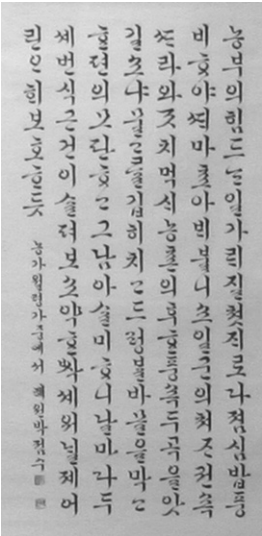
대회 장소인 이룸홀 로비에는 사전 공모를 통해 수상된 미술·사진 무분에 대한 전시회가 열렸다.



사진부문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김태호 씨의 작품.



미술부문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한 고창균 씨의 작품.





음악경연이 끝난 후 실시된 각 부문별 시상식에 앞서 예술제 심사위원장인 서울대학교 사범대 윤희원 교수가 '심사평'을 전하고 있다.



김창수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장이 각 부문별 우수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하고 있다.



부형중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장이 각 부문별 최우수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하고 있다.



김정록 중앙회장이 예술제 전체대상을 수상한 박슬범(음악부문) 군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여한 후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체 수상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INTERVIEW

오바타에이코(글짓기 부문 최우수상, 보건복지부장관상)

Q)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은?

A) 최우수상이란 큰 상을 받으리라 예상 못했는데, 이렇게 받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상을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Q) 남편과 국적이 다른데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A) 지금의 남편과는 지난 1992년 종교활동을 통해 만났고 이렇게 결혼해 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Q) “다문화가정 장애부모의 고민을 솔직히 담은 글이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은?

A) 우리 가정에 존재하고 있는 고민을 최대한 솔직히 글로 표현해 봤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이 제가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Q) 에이코 씨의 글 속에 “언젠가부터 큰 딸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큰 딸이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제 큰딸은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착한 아이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말썽을 피우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집 사정을 생각해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딸의 모습이 너무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더구나 저는 한국말에 아직 서툰니다. 한창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사춘기일 때 엄마와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을 혼자 고민하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짐과 부담이 딸의 마음에 생채기를 낸 것 같습니다.

Q)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여시겠습니까?

A) 먼저 제 큰딸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믿음을 줄 것입니다. 비록 부모가 ‘장애인’이고,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아도 누구보다 딸을 사랑하고 믿고 있음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제 큰딸이 비록 지금은 방황하고 있지만 글 속에 표현된 엄마의 마음을 안다면 곧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가족과 함께 할거라 믿고 있습니다.

제24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수상자 명단

연번	부문	순위	부처	성명(성별,나이)	소속	비고
1	음악	전체대상	보건복지부	박슬범(남,16)	경기예술고등학교	지적장애2급
2	글짓기	대상	법무부	서은자(여,40)	전북협회 군산시지회	지체장애1급
3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장유진(여,17)	안산초지중학교	뇌병변2급, 시각4급
4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오바타에이코(여,40)	경북협회 포항시지회	장애가족
5		최우수상	고용노동부	이복록(여,51)	충남협회 공주시지회	지체장애4급
6		우수상	대회장	이승봉(남,16)	대구성보학교	지적장애2급
7	미술	대상	고용노동부	고창균(남,44)	서귀포온성학교	지적장애2급
8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박점수(여,40)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체장애1급
9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이종득(남,17)	진주혜광학교	지적장애2급
10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송재호(남,74)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체장애2급
11		우수상	대회장	이원재(남,47)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장애3급
12	사진	대상	보건복지부	임희원(남,17)	인천혜광학교	시각장애1급
13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박소영(여,17)	인천혜광학교	시각장애1급
14		최우수상	고용노동부	이종철(남,35)	충북장애인사진연구회	지체장애2급
15		우수상	대회장	사영철(남,41)	충북장애인사진연구회	지체장애1급
16	음악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김유경(여,18)	부개여자고등학교	발달장애1급
17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김상모(남,18)	부산분포고등학교	지적장애2급
18		최우수상	고용노동부	차유택(남,16)	인천혜광학교	지적장애2급
19		우수상	대회장	김용수(남,17)	강원명진학교	시각장애1급



발행인 칼럼

언론매체의 '장애인 관련 보도'에 대한 제언(提言)

런 기사에는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의 '인생스토리'가 주를 이룬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런 기사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는 반가운 기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아쉬운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도된 언론보도에는 평범한 장애인이 거의 없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처절하게 살아온 다소 특별한

장애인의 '인생스토리'가 담겨 있을 뿐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의 '관심'과 '감동'을 유발하는 큰 장점이 있겠지만, 그에 반하는 점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한 언론 기사만 보면 장애인들은 반드시 '불굴의 의지'로 무장해야 하며, 모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이상목 교수가 전신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다시 교단에 오를 수 있었던 원인은 물론 이 교수의 노력이

밀바탕이 되었겠지만, 이 교수가 사용하고 있는 '침단보조기기'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교수가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동료 교수들을 비롯한 학교 측의 '배려'도 중요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중증시각장애인에 대한 기사에는 더욱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가 감동적인 기사의 이면에는 장애 대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기 위한 '활동보조인'과 '편의시설'의 중요성 또한 부각시켰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습득하고 학습에 필요한 부분인 '음성도서'와 '전자파일' 제공에 대해서도 다뤄야 했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불굴의 의지'로 대학을 수석졸업 한 것도 뜻 깊은 일이겠지만, 신체적 장애를 제외한 무엇이 그를 '역경' 속으로 몰았고 또 그 '대안'에 대해 짚어 주었어야 했으며, 그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려면 장애인 성공이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하고 처절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나라가 아닌,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요, 우리 장애인들에게 바라는 진정한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훨씬 더 많듯이, 장애인들 중에도 특별히 강한 이들보다 평범한 이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장애인들이 자신의 신체적 장애 외에 다른 이유로 '불굴의 의지'로 무장한 채 '모진 역경'을 이겨내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 평범한 이들도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한 사회'가 하루속히 오기를 희망해봅니다.

중앙회장 김정록

'APDPI 사무국장' 중앙회 방문



중앙회를 방문한 APDPI의 사왈락 통과이 사무국장과 김정록 중앙회장이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APDPI(Asia-Pacific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사무국의 사왈락 통과이(Sawalak Thongkuay) 사무국장이 6월 1일(수)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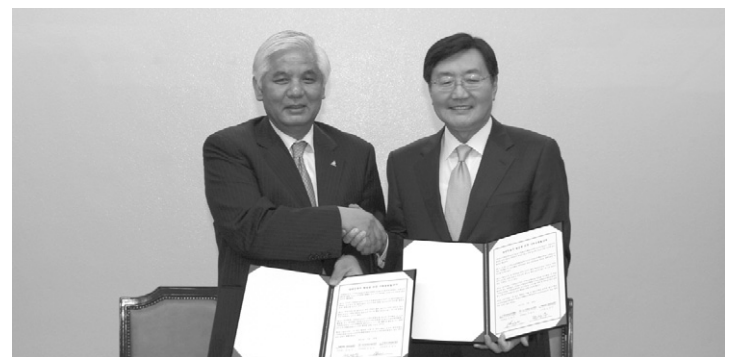
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를 방문, 김정록 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김정록 중앙회장과 사왈락 사무국장은 2013년부터 한국 주도로 새롭게 시작될 'New Decade(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전반적인 준비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New Decade에 장애인당사자 참여를 보장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아·태지역 장애인당사자단체 연합회(AP DPO UNITED)를 결성, 장애인당사자단체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향상으로 이어지는 'New Decade'를 만들기로 결의했다.

국민연금공단과 '사회공헌협약' 체결

'맞춤형 여행' 및 '문화 체험' 제공 협력



김정록 중앙회장과 전광우 이사장이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정록, 이하 장총련)는 5월 25일(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이하 공단)과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지장협, 장총련, 공단은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여행' 또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특히 공단의 임직원들은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적극 참여,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공단과의 협약을 체결한 후 "지장협, 장총련, 공단은 대한민국 480만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이에 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사회적 책무에 앞장서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25호 2011년 6월 15일

회 장 · 발행인 / 김정록 편집장 / 이현일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서울라05825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hambaknun30@nate.com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활동 동참



김정록 중앙회장 및 전국 시·도협회장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응원하며 투표 활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우근민, 이하 제주)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힘을 보탰다. 김정록 중앙회장과 지장협의

전국 시·도협회장은 지난 18일(수) 제주시 연동에 소재한 더호텔에서 열린 ‘2011년 시·도협회장 워크숍’에서 제주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투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제주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은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도모함은 물론, 친환경 국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라고 밝히며 투표에 참여할 것을 40만 지장협 회원들에게 촉구했다.

‘세계 7대 자연경관(New 7 wonders of nature)’은 스위스의 세계 문화유적 보호 재단인 ‘뉴세븐원더스’가 ‘세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7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제주는 지난 2009년 베트남의 ‘하롱베이’, 브라질의 ‘아마존’ 등과 함께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고, 오는 11월 11일 최종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

<투표문의 : 02)516-1148>

‘사무국장 직무교육’ 실시



‘2011년 시·군·구지회 사무국장 직무교육’에서 김정록 중앙회장이 ‘실무책임자의 자세와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 산하 시·군·구지회 사무국장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2011년 시·군·구지회 사무국장 직무교육’이 지난 5월 31일(화)부터 6월 1일(수)까지 1박 2일동안 충북 청주에 위치한 라마다프라자 청주호텔에서 개최됐다.

전국 232개 시·군·구지회 사무국장을 비롯해 총 250여명이 참가한 이번 교육에서는 지장협 산하 지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국장’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교육이 실시됐다.

또한 조직원 간의 상호교

류를 통해 소속감을 고취하고, 협회 발전을 위한 전국 사무국장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교육의 첫 번째 날에는 ‘실무책임자의 자세와 역할’을 주제로 하는 김정록 중앙회장의 특강과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의 ‘장애인 단체의 홍보전략’, 에듀웨이 김성학 대표의 ‘조직의 활성화’ 강의가 실시됐다.

이어 두 번째 날에는 중앙회 김태호 사무총장의 ‘지장협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에 대한 강의와 중앙회 송용성 조직행정실장의 ‘조직관리 및 실무’ 강의 등이 실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제주지원센터(센터장 부형종, 이하 제주센터)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카툰전시회를 개최했다.

5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5일간 제주도청 제2청사 진행된 전시회는 만화적 요소를 가미한 카툰을 이용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장애인편의시설이 장애인만의 시설이 아닌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시설’임을 인식

‘장애인편의시설 카툰전시회’ 개최



지체장애인편의시설제주지원센터가 제주도청 제2청사에서 개최한 ‘장애인편의시설 카툰전시회’ 모습.

시키는 뜻 깊은 기회가 됐다.

한편 제주센터는 향후 장애인과 장애인편의시설홍보를

위해 카툰전시회를 비롯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충남지원센터(센터장 이견희, 이하 센터)와 홍성군지원센터는 5월 26일(목) 현재 내포신도시에 건설 중인 충청남도청 신청사의 공사현장을 황영란 충청남도정책특별보좌관과 함께 방문했다.

신청사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획득 및 인증’을 위해 실시된 이날 방문에서 센터 직원들은 도청이전추진본부 및 충남개발공사 관계자의 브리핑을 받고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공사현장 점검 후 센터의 우인숙 팀장은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 1등급을 받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당사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한 문제점들이 여러 곳 발견되었

충남도청 신청사 건설현장 방문



충남도청 신청사의 공사현장을 방문한 지체장애인편의시설충남지원센터 직원들이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다”며 관계자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날 점검에 동행한 황영란 정책특별보좌관은 “현재 상태로 완공 될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1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하며 “최소한의 법을 지켜 가깝스로 이용하는 청사가 아니라 장애인이 편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를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하기관 단합대회’ 실시



단합대회에 참가한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지난 6월 4일(토)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김창환 회장, 이하 대구협회)는 지난 6월 4일(토) 대구직업능력개발원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에서 대구협회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친목도모와 소속감을 제고하기 위한 ‘단합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족구, 피구, 휠체어 릴레이, 좌식 배구 등의

실내경기와 4인5각, 단체축구, 이어달리기 등의 실외경기가 진행됐다. 특히, ‘나는 가수다’를 패러디한 ‘나만 가수다’ 코너가 실시, 직원들의 숨겨둔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마련됐다.

한편 김창환 대구협회장은 “앞으로 대구 지역 장애인복지의 선봉장인 협회 직원들의 사기와 교류를 위한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전했다.

성명서

“공무원 시험에서 의사소견서 요구는 차별이다”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장애인이 시험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으려면 장애인 증명서 사본과 종합병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시험원서에 장애등급과 종류, 필요한 편의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2조〉에서 채용 이전에 의학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의라 할지라도 차별금지법으로 금하고 있는 의학적인 소견서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복사하면 될 것을 증명서를 요구하

는 것도 과중한 절차이거나, 비장애인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편의제공 대상자인지 엄격히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소견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의학적인 소견서를 작성하는 의사가 장애인 복지 전문가도 아니고, 단지 의학적인 판단으로 편의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장애인 등급과 유형만으로도 편의제공의 판단은 충분하다. 그렇지 않다면 등급판정 제도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심을 받거나 활용가치가 없어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는 불

완전한 무가치한 제도가 되어 버린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서 5항〉은 시험 또는 평가과정에서의 개선에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권리인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4항에서는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이 형평성의

문제로 인한 역차별로 간주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등급별, 유형별 편의시설 제공 매뉴얼을 행정안전부가 작성하여 상지장애의 경우라든가, 시각장애인의 경우라든가, 하지장애인의 경우라든가 하면 될 것을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여 의사가 판단에 맡긴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의사의 의학적인 효력을 사회적 활동까지도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과신하는 것이다. 그것도 아무 의사나 믿을 수 없으므로 종합병원 의사에게서 소견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차별금지법에 위반해가면서 형평성을 들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즉시 시정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김정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DPI,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문경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실시한 ‘무료 건강검진’ 모습.

지적·자폐성장애인 ‘무료건강검진’ 실시

문경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문경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센터장 유정주, 이하 문경자립센터)에서는 5월 23일(월)과 24일(화) 양일간 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비대상자 19명을 대상으로 문경제일병원(이사장 류종식)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비만 등으로 인해 질환 발병률이 높으며 평

소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의사표현의 어려움으로 올바른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건강검진을 통해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검진은 전문의 진료, 흉부엑스선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산부인과 검진(여성) 등이 실시됐다. 또한 추후 검진결과에서 질환이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적절한 처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문경제일병원 한 관계자는 ‘우

리가 가진 의료자원을 소외받는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과 행복해하는 모습에 오히려 감사의 마음이 든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받는 사람들이 따뜻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이번 무료건강검진에 도움을 준 문경제일병원은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을 위해 의료지원을 하며 지역 소외계층의 ‘건강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산악구조대와 함께한 아름다운 산행

전북협회 정읍시지회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지회장 김택진)의 회원들이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한 특별한 산행에 나섰다.

지난 5월 14일(토) 정읍시지회의 회원 50여명은 정읍시 산악구조대(대장 정재석) 대원들과 함께 고부면 두승산으로의 등산을 실시했다. 산악구조대원과 지회 회원이 2인 1조, 3인 1조 팀

을 구성해 진행된 이날 산행은 두승산을 출발 500여m의 산봉우리인 말봉을 거쳐 유선사까지 2.3km의 코스로 진행됐다.

휠체어와 의족 등에 의존하고 있는 정읍시지회의 회원들이 산행에 도전하게 된 것은 이날 산행에 함께한 150여명의 산악구조대의 따뜻한 손길이 있어 가능했다. 특히, 산악구조대원들은 직접 회원들을 부축해 산 정상까지 인도했고, 비탈길에서는 휠

체어를 로프로 묶어 끌어 올려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에 김택진 정읍시지회장은 “오늘의 산행으로 많은 회원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라고 말하며 “어려운 일을 마다 않고 장애인들을 부축해 산 정상까지 인도해준 정읍시 산악구조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재석 산악구조대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정읍시지회의 회원들이 산행에 동행한 정읍시 산악구조대 대원들과 함께 두승산 정상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소외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아

름다운 산행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포항지체장애인 극기체험대회’ 개최

경북협회 포항시지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지회장·이용성)가 지난달 25일(수) 회원들의 도전정신과 심신단련을 위해 청송 주왕산으로 ‘포항지체장애인 극기체험대회’를 다녀왔다.

올해로 9번째를 맞는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들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청송 주왕산 제1폭포까지 등반하며 서로 간의 벽을 허물고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포항시지회 남·여성후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점심을 먹은 후 본격적으로 극기체험에 나선 회원들은 휠체어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잘 포장된 도로를 따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등반을 시작, 오르막 돌부리 등



‘포항지체장애인 극기체험대회’에 참가한 포항시지회 회원들의 기념촬영 모습.

장애물 앞에서는 봉사자들의 도움과 하나 된 마음으로 출발한 지 1시간여가 채 되지도 않아 최종 목적지인 제1폭포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이용성 지회장은“극기를 통해 회원들에게는 도전과 극복, 의지

를 가득 담아가고 봉사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많은 부를 얻은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목적지까지 산행을 완주한 참가자들에게는 완주 선물이 주어졌다.

휠체어컬링팀 ‘롤링스톤’ 선수 모집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인숙, 이하 의정부장복)의 휠체어컬링팀 ‘롤링스톤’에서는 컬링선수를 모집하고 있다.

동계스포츠 인기 종목인 ‘컬링’을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정비한 ‘휠체어컬링’은 동계 패럴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으며, ‘얼음 위의 체스’라 불릴 정도로 작전 및 심리전에서 오는 긴장감을 만끽할 수 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누구나 지원가능하고, 연령 및 모집인원의 제한은 없다. 복지관 위치상 서울 및 경기북부 지역 거주자를 환영하고 있다.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선수모집하고 있는 ‘휠체어컬링’의 경기 모습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장복 건강관리팀(담당자 이인선, ☎031)850-536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의정부장복의 휠체어컬

링팀 롤링스톤은 지난 2006년 창단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선수 4명(남자 3, 여자 1)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7회 명랑운동회’ 개최

삼성SDS가 함께하는 ‘축제’의 현장



6월 2일 노해근린공원에서 열린 ‘제7회 명랑운동회’에서 참가자들이 ‘큰 공 굴리기’ 경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립북부장어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어인종합복지관(관장 정의철, 이하 북부장복)이 주관하고 서울시 장애인체육회가 후원한 ‘제7회 명랑운동회’가 6월 2일(목)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노해근린공원에서 개최됐다.

복지관 장애인고객 및 가족, 직원, 삼성SDS 자원봉사자 등 33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룬 이날 운동회에서

는 줄다리기, 콩주머니 던지기, 큰 공 굴리기, 볼컬링 등의 ‘추억의 게임’을 비롯해 뽕망치 릴레이, 럭비공 굴리기, 풍선기둥 세우기, 휠체어·겉기 릴레이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경기들이 진행됐다.

또한 부대행사로 장애인 고객들은 물론 비장애인 참가자들에게도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이벤트 부스도 마련됐다.

‘장애이해&체험’ 교육 실시

장애 어려움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이 지난달 30일 실시한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체험 교육’에서 온양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시각장애체험을 하고 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복지관)은 지난 5월 30일(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온양여자중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체험 교육’을 진행하였다.

장애이해 및 예방교육, 시각장애체험, 청각·언어장애체험(수화교육), 지체장애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된 이날 교육에 참가한 온양여자중학교 학생 108명은 진지한 자세로 교

육에 참여했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시각장애인 체험을 할 때 앞이 안보여 무서웠고 휠체어를 타고 경사로를 내려올 때도 무서웠지만 이렇게 체험을 통해 장애인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 뜻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아산복지관 이창호 관장은 “이번 장애체험 및 장애예방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 하나 되는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천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김천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 김천복지관)은 6월 2일(목)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김천대학교 부속유치원에서 김천복지관에서 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아동 5명과 김천대 부속유치원 7세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5월 25일(수) 우리유치원에 이어 2번째로 열린 이날 교육에서는 김천복지관의 사회복지

‘장애·비장애아동 통합교육’ 실시



김천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한 ‘장애·비장애아동 통합교육’ 모습.

사 1명과 심리치료사 1명이 교육 담당자로 참여하여 장애·비

장애아동이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친근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만들기, 그림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김천복지관 박선하 관장은 “오늘의 교육이 장애아동에게는 취학 후 학교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비장애아동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황식 총리, “장애인지예산 도입 검토하겠다”

‘장애인청’ 신설 반대... “장애인정책위원회 활용이 효율적”

박은수 의원과 ‘장애등급심사제도’에 대해 공방 벌여



민주당 박은수(우) 의원이 6월 8일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좌) 국무총리에게 현행 장애등급심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김황식 국무총리가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에 대해 충분히 수긍하며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6월 8일(수)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의 “장애인정책의 재확보를 위한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도입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양성평등차원에서 성인지에

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장애인지예산 차원에서 도입하는 주장이신데, 충분히 수긍하는 의견”이라며 “기대효과 등에 대해 검토하고 효율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남녀 차이를 고려해

의도하지 않은 예산의 불평등한 배분효과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예산의 배분규칙을 재정립할 수 있다.

김 총리는 “장애인 정책이 각 부처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를 총괄, 관리하는 장애인청이 필요하다”는 윤 의원의 의견에 대해 “여러 부처로 나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총리가 위원장인 장애인정책위원회가 있다”며 “여기서 총괄 조정하고, 장애인 위원들도 7명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위원회를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총리는 현행 ‘장애등급심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박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제도가 인간을 모욕하는 대표적 사례인 장애등급심사제도를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 뿐”이라며 “장애등급재심사로 인해 36.4%가 등

급이 하락했는데 이는 장애인 100명 가운데 36명이 등급하락으로 서비스 축소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 국가의 합당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대신 장애인이 등급에 합당하지 않는 지원을 받거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행세를 하며 혜택을 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부분은 예산을 줄여서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총리는 “사회가 너무 부정직해서 실제로 등급과 다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각장애인임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있었다”며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런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자 해서 이런 감사 결과를 내놓은 걸로 기억한다. 그에 따라 이런 피해가 높아진 것이고, 어쨌든 장애심사에 관해서 제대로 장애인들에게 처우하기 위해 거품을 걷어낼 필요가 있어 정부에서 노

력을 한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부당하게 돈을 버는 사람도 많은데 그들에 대한 잣대는 가혹하지 않고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선 가혹하게 잣대를 세워도 되느냐”며 “등급재심사 과정에서 견지 못하는 장애인이 의료테스트에서 발가락 하나가 움직인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이 하락돼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기고 직장을 포기해야 했다”며 반박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등급 하향시킨 결과 예산이 많이 절감됐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게 옳은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했고, 이에 김 총리는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직성을 바로 잡아서 모든 제도가 취지에 맞게 정상 작동하자는 취지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줄이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출처-에이블뉴스〉

“장애연금 4만원 인상 준비해야”

진 장관, “관계부처와 협의”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13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장애인연금을 4만원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와 복지부는 2011년부터 장애연금의 부가급여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상당 수준을 보전하는 금액으로 인상토록 노력한다고 했다”며 “작년 부가급여를 2만원정도 인상하도록 준비됐지만 ‘무’로 돌아갔다. 벌써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와 복지부가 같이 지키기로 한 약속이다. 내년 예산에는 (부가급여) 2만원, (기초급여) 2만원을 (합)해서 4만원(인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출, 그게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출처-에이블뉴스〉

진수희 장관, “활동지원제도 대상 단계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재정상 힘들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13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현재 장애인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하위법령과 지침 등 세부사항을 만들고 있다. 신청 자격을 1급으로 제한하는 문제는 앞으로 제반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활동지원제도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전산서비스 구축 등 인프라를 구축해 10월부터는 제도가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 장관은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

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아닌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질의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건 재정여건상 힘들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며 “완전 폐지하면 5조7천억이 들고 지방정부 예산만 해도 추가로 1조 4천억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압류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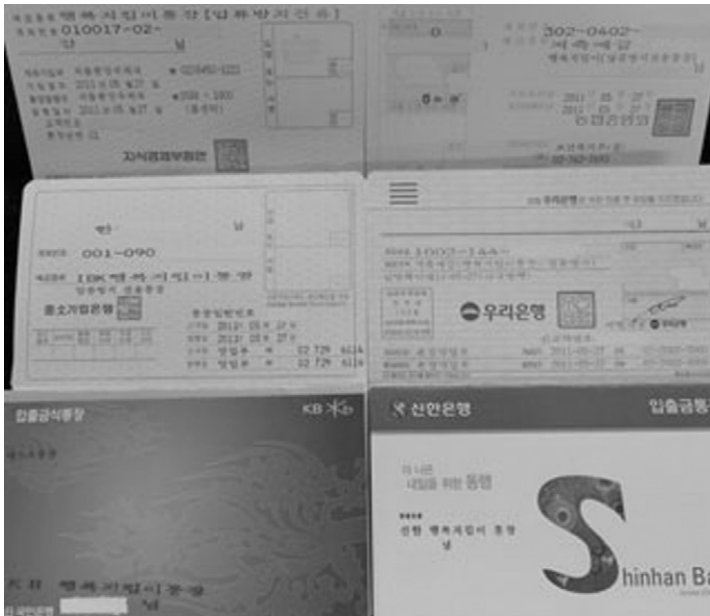
복지부, 6월부터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달 31일(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통장’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통장이 다른 금융권과 뒤섞이게 돼 사실상 압류가 이루어져 왔다.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에서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참여(통장발급)하는 금융기관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SC제일은행·기업은행·외환은행·한국



6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압류를 방지하는 ‘행복지킴이통장’ 발급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씨티은행·산업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경남은행·전북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농협·우체국·수협·신협·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산립협

동조합·HMC증권·신한금융투자 등 24곳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2-2023-8125)로 하면 된다.

형사·사법절차시 장애인 조력내용 고지 의무화

유재중 의원, ‘형사소송법’ 및 ‘장차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장애인을 위한 조력 내용 등의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지난 8일(목)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차별금지및 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장애인 등의 특별보호가 필요한 피의자를 신문할 경우 피의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을 몰라 신뢰 관계자를 동석하지 못해 법적·심리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가능 여부를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장차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장차법도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조력을 신청할 경우 보조인력·점자자료·수화통역 등을 제공하거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신문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는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 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몰라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입어왔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동석 신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장차법 개정안에는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 ©유재중 의원실

조력 내용 고지 의무와 조력 신청 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소송법·장차법 개정안은 권영진 원희목 유기준 유재중 윤석용 이낙연 이정선 이춘식 정옥임 현경병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출처-에이블뉴스〉

인권위, 지적장애인 착취·폭행 검찰 고발

재발방지 및 체불임금 지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지난 9일(목)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임금을 주지 않고 수년 동안 착취·폭행한 전남 해남군의 외딴 섬 ‘상마도’의 김양식업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또한 전남도지사 및 광주고용노동청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과 피해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김양식업자들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상마도’의 김양식업자 3명과 이들에게 고용되었던 지적장애인 피해자 4명을 직권조사한 바 있고,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9년 10개월간 일했지만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한 경우에도 임금

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 중 3명은 퇴직한 이후에도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액수는 고용 기간에 따라 각각 2백80여만 원, 2천7백만 원, 3천2백여만 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 김양식업주는 피해자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배를 발로 차거나 빵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인권위는 김양식업주들의 이 같은 행위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주거나, 장애인에 대한 금전을 착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재발방지 및 체불임금 지급을 권고했다.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6월 제출

복지부, “마무리 단계…제출 예정”

유엔(UN)장애인권리협약의 ‘국가보고서’가 이르면 6월 안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5일(수) “현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제출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빠르면 6월 안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은 협약 발효 최초 2년 내 정부보고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추후 4년 이내 후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선 2009년 1월 10일 최초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고서 제출기간은 지난 1월 10일까지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규정대로 하면 1월까지였으나 검토 및 부처의견 청취 등 내용적으로 충실하리라 보니까

좀 지연이 됐다”고 전하며, 초안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의 차이에 대해선 “초안과는 달리 통계자료가 업데이트 됐고, 부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외교통상부를 경유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되며, 제출됨과 동시에 국가보고서는 공개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50개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구성돼 있는데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 및 건강권 등 장애인의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장애인권리협약만 비준했을 뿐,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출처-에이블뉴스〉

장애인 판사-벤처 신데렐라 결국 파경

법원, “남편 방치 책임…위자료 3억”

중증 장애인 뉴욕시 판사 정범진(44)씨와 수백억원대 웹젠 전자장 이수영(46)씨가 결혼 7년만에 이혼 소송을 통해 파경을 맞았다.

지난 1일(수)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정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있다”며 정씨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게임 벤처 회사 ‘웹젠’

의 창업자이며, 정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전신마비를 딛고 뉴욕시 판사가 된 인물이다. 지난 2003년 이씨는 방송을 통해 정씨를 알게 된 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를 이상형으로 지목해 관심을 표현했고 적극적인 구애를 통해 그 이듬해 전격 결혼을 발표하며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들의 파경 소식이 알려지자 교제 당시 회사 자금 횡령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던 이씨가 정씨를 자신의 송

사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검사들에게 도움을 부탁하고, 재판을 방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씨는 ‘이씨가 송사가 해결되자 미국을 찾지도 않고 자신을 제대로 보살피지도 않았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정씨는 내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으며 재산



7년전 다정한 모습의 정범진·이수영 씨. 장애를 넘은 ‘순애보’로 화제가 된 이들은 결혼 7년만에 결국 파경을 맞았다.

획득에 실패하자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다’고 맞섰으나 법

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직업재활사업

광고디자인·슬로건’ 공모

개발원, 오는 7월 22일까지 접수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용흥)이 오는 7월 22일(금)까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광고디자인 및 슬로건’을 공모한다.

공모부문은 동영상광고디자인, 배너광고디자인, 슬로건 부문 등 총 3가지로 나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장애인 직업재활 인식개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 활성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관련 등이다.

동영상광고디자인은 3~5분(100MB 이하)의 분량으로 제작형식은 자유훈이다. 원본파일(fle, avi, wmv파일)과 DVD 녹화본을 함께 제출해야 된다.

배너광고디자인은 180*150 픽셀, 470*65 픽셀(원본 PSD 파일 반드시 첨부) 등 2종으로 제작해야 되고, Animation(애니메이션) Gif 포맷 또는 Flash(플래시)로 제작된 배너여야 한다.

슬로건의 경우 간명하고 핵심적인 어구로 표현하되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용어로 작성해야 된다.

동영상 및 배너광고디자인 응모자는 7월 22일까지 신청부문의 파일을 첨부해 이메일(mje282@naver.com)로 보내면 된다.

동영상의 모든 제출파일 이름은 ‘응모자명(응모자명칭). 확장자’로 바꾸고, 동영상 광고디자인 부문은 이메일 제출 후 DVD 제작본을 우편으로 제출해야 된다. 광고디자인 부문은 1인당 2개 작품까지 접수할 수 있고, 공동작품일 경우 2명 이내까지 가능하다.

슬로건 응모자는 7월 22일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www.koddi.or.kr) 공지사항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출처-에이블뉴스〉

장애인기능올림픽 한국선수단, 금빛 담금질

공단 5개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합동훈련 돌입

‘서울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한국선수단이 금빛 담금질을 시작했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성규, 이하 조직위)는 한국선수단이 지난 13일(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훈련을 위한 ‘합동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국선수단은 오는 9월 9일까지 13주 동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5개 직업능력개발원에서 5연패 달성을 위해 구슬땀을



‘서울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엠블럼.

흘리게 된다.

훈련에서는 컴퓨터 수리, 양복, 귀금속공예 등 29개 직종의 직업기능경기 특별 교육과 함께 훈련지도위원의 정기적인 지도 및 평가가 실시된다. 또한 선수

들의 자신감 향상 강의 등 각종 문화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이성규 위원장은 “3개월여의 긴 시간을 훈련에 매진하는 한국선수단이 좋은 환경에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 시설 및 프로그램에 각별히 신경 썼다”며 “지구촌 최대의 장애인 축제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한국이 5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선수단을 응원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에이블뉴스〉

‘여성장애인 꿈을 키우는 도서관’ 운영

여장연, 6월부터…무료 도서대여 서비스 진행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에서는 ‘여성장애인 꿈을 키우는 도서관’을 6월부터 운영, 무료로 도서를 대여해주고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책을 대여하고 전하나 이메일(kdauw@hanmail.net)·우편·방문을 통해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

‘여성장애인 꿈을 키우는 도서관’ 프로그램 포스터.

일로 대여목록 파일을 받아 확인, 책을 선정하면 된다.

소장중인 도서는 ‘악마를 프라다를 입는다’, ‘연인이 되는 절차’, ‘메이드인 아일랜드’, ‘꿈꾸는 다락방’ 등 총 1300여 권이고, 대여기간은 보통 3주지만 1주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원하는 도서를 ‘무료택배서비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02-3675-9935)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 요구 고려한 권익지원정책 전개할 것”

차현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본지 인터뷰 통해 밝혀

막중한 책임감 느껴... “장애인의 입장에서 현장의 요구 담아낼 것”



<프로필>

- ▲ 차현미(車賢美)
- ▲ 1962년 9월 17일 출생
- ▲ 카톨릭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졸업
- ▲ 서울시립북부장래인종합복지관장 역임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책보좌관
-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사 역임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2일(수) 개방형직위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차현미(49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사(현재 이사직 사임)를 임명했다. 서울시립북부장래인종합복지관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책보좌관직 등을 역임한 차현미 과장은 취임 한 달여가 지난 현재, 장애인 정책이 장애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다. 본지는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차현미 과장의 취임 한 달간의 소회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으로서의 포부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정책국 전체 사업의 맥락 속에서 장애인권익지원과 본연의 역할과 기본적인 업무의 영역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정해진 업무와 정책수행 속에서 ‘얼마나 장애인의 입장에서 현장의 요구를 담아내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도장애인의 의료재활정책을 구상한다고 했을 때 장애인 당사자의 의료재활정책을 그 장애의 정도와 시기에 맞추어 효율적인 의료재활이 되도록 할 것이며,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문제까지 함께 고려한 정책을 구상하는 등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의 ‘현장의 요구를 고려한 장애인권익지원정책’을 구상하고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 제 목표이자 포부입니다.

Q) 장애인단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A) 장애인당사자로서 이 자리에는 그 자체가 장애인시설, 단체,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거라 여기고 있습니다.

소관 업무와 관련된 최선의 정책,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시설과 단체, 전문가, 국내·외 관련 국제단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Q) 이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책보좌관직을 역임하셨습니다. 정책보좌관직을 수행하며 느꼈던 보람과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A)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체육, 관광, 콘텐츠, 종교, 홍보 등 국민의 실생활과 연관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또한 저는 ‘장애가 장애인의 문화 향유 및 예술활동 참여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책보좌관직을 수행하면서 장애인의 문화향수와 예술활동의 참여라는 측면에 관심을 두고 장관님을 보좌하고 사업과 여러 가지 일들을 구상하고 전개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의 예술활동 지원과 새로 이어지는 문화 및 관람시설을 ‘무장애 환경’을 갖추도록 정책적인 보좌를 한 점은 마음 한 곳에 보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열심히 사업을 살펴서 틈새 사업과 장애인을 연결시켜주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저작권도우미 사업’은 기존에 문화부에서 진행해 오던 ‘저작권 지키미 사업’을 중증 재가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찾아 연결한 것이었는데 문화부 내부에서 평가도 좋았고 장애인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 아주 성과가 좋은 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이와 같은 일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납니다. 하지만 이 점은 문화부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직원이 충분히 수행할 것이라고 믿고, 현 장관님도 장애인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시니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Q) 과장님의 좌우명과 인생철학은 무엇입니까?

A) 이 질문은 매우 부끄럽습니다. 나름대로 한길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어떤 좌우명이나 인생철학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일이고, 일이 좋아서 열심히 해온 것뿐이라는 것이 좀 더 솔직한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 상황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신념은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일은 하지 않는 편이 더 좋았다’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움직였고, 시도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 편보다 더 좋았다’는 소중한 결과를 얻은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성과가 중요시 되는 세상에서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기에 현재의 상황이라는 과정에 보다 성실히 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새보람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먼저 부족한 사람에게 인터뷰의 기회를 주신 새보람 기획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이번 인터뷰는 다시 한 번 이 역할에 임하는 자세를 정리하고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보람을 구독하시는 장애인, 장애인가족, 자원봉사자, 관계자 여러분께 초심을 잃지 않고 당초에 계획한 업무수행계획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많은 충고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으로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취임한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지난 한 달간의 소회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벌써 한 달이 되었나요? 업무파악 및 공부, 각 분야별 토론회 참석 등으로 지난 한 달은 너무도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대표하여 정부와 민간의 소통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먹고 자는 시간도 아까운 것이 제 솔직한 심경입니다.

저와 같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개방형과 공모의 형식을 취하여 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인터뷰를 보면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Q)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대해 생소한 독자들을 위해 과장님의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정책국이 있고 정책국 안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및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는 장애인 차별 관련 관리 운영 및 종합대책수립,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장애인 의료재활사업의 종합대책 수립,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원 육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국제협력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으로서의 목표와 포부는 무엇입니까?

“필리핀, 호주의 장애인복지 현장을 다녀와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협의체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복지관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는 분기별 관장회의와 사무국장회의, 직원교육, 체육대회 등을 통하여 서로간의 정보 공유와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 또한 선진국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기획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6월 6일(월)부터 12일(일)까지 6박 7일의 일정으로 실시된 필리핀, 호주로의 ‘해외연수’의 여정을 협의회 박선하 회장의 수기로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해외연수 여정의 시작

2011년 6월 6일(월) 새벽 1시 30분, 김대열 협의회 간사와 함께 김천을 출발, 문경에서 유정주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장과 이제근 영천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을 만나 일주일간의 먼 여정의 길에 올랐다. 공항도착시간 5시 50분, 벌써 도착하신 많은 관장님들이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필리핀, 호주를 향하는 올해 연수는 막연한 견학이나 관광이 아니다. 김정록 중앙회장님과 각 복지관 관장님들이 직접 참여하여 국외 사회복지 제도와 현황, 편의시설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거기에서 체득한 경험을 국내 장애인복지현장에 적용시키로자 하는 것이 이번 연수의 주된 목적이다.

오전 8시 30분, 우리는 드디어 마닐라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륙 후, 가이드로부터 미리 전해 받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을 연수에 대한 자료를 살핀 다음 피곤한 눈을 잠깐 붙여 잠을 청했지만 기대와 설렘, 걱정 때문인지 잠이 오지 않아 창가로 눈을 돌렸다. 마닐라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바라보는 쪽빛바다는 한국을 떠나왔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해주었다.

첫번째 행선지 ‘리잘공원’

4시간 후 마닐라 공항에 도착한 우리 일행을 맞이한 것은 더위였다. 온도가 30도 정도는 될 것 같은 무더운 날씨였다. 입국수속을 마치고 우리를 마중 나온 가이드의 안내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마닐라 시내에 있는 ‘리잘 공원(Rizal Park)’이었다.

리잘공원은 필리핀 독립운동가 중 한사람이자 국민적 영웅인 ‘호세 리잘(Jose Rizal)’ 박사를 기리는 공원으로 리잘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기념탑 앞에는 필리핀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장한 헌병이 이곳을 24시간 지킨다고 한다.

두번째 행선지 ‘마닐라 성당’ 십자가 지지 않는 예수상 눈길

다음 일정이 바빠서 공원을 산책하지는 못하고 정문에서 잠시 둘러본 후 바쁘게 버스로 다음 장소인 ‘마닐라 성당’에 도착하였다. 마닐라 성당은 1581년 대나무와 야자 잎으로 처음 지어진 후 다섯 번의 공사를 통해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중앙 제단의 예수상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 이는 필리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 예수보다 이런 온화한 예수를 선호해서 모신 것이라고 한다. 이런 필리핀 사람들의 여유롭고 온화한 마음은 필리핀을 여행하는 동안 만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필리핀 성당에 들어서자 가톨릭 국가답게 많은 사람들이 미사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나도 잠시 한국

의 장애인의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 인권이 확보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도 했다.

아시아 최초의 ‘농아장애인학교’

마닐라 성당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더 머물고 싶었지만 다음 목적지인 아시아 최초의 ‘농아장애인학교’를 방문하기 위해 다시 발길을 돌렸다. 장애인학교로 가는 길에 버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마닐라 도심은 고층건물과 녹슨 양철집들이 혼재해 있어 마치 우리나라 70~80년대의 서울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농아장애인학교는 아시아 최초로 설립된 농아학교이지만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함께 공부하고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날이 마침 개학날이라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 우리를 보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선생님의 안내로 학교시설을 돌아보며 인상적이었던 것은 복도 바닥이었다. 바닥이 돌이나 시멘트로 시공되어 있지 않고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나무로 한 이유는 발을 굴러 소리를 내게 함으로써 보행자가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었다.

비록 선진국의 장애인학교에 비해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아 불편해 보였지만 아름답게 꾸민 조경과 소수의 학생으로 클래스를 구성하여 ‘개별학습’의 효과를 높인 점 등은 비록 개발도상국이지만 장애인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열정과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호주 시드니로 향하다

‘농아장애인학교’를 방문한 후, 우리 일행은 저녁을 먹고 다음 목적지인 호주 시드니로 가기 위해 다시 마닐라공항으로 향했다.

밤 9시 비행기를 타고 9시간 정도를 날아 6월 7일 아침 호주 시드니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우리가 탄 비행기는 당초 도착시간 보다 3시간 정도 빨리 도착했다.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공항을 빠져 나왔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우리가 탄 비행기는 시드니행이 아니라 멜버른 행이었다. 멜버른 경유를 알지 못했던 우리는 멜버른공항에서 환승하여 시드니로 가는 바람에 예정에 없었던 멜버른 땅을 밟아보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

멜버른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한 시간 반을 날아서 9시30분쯤 드디어 ‘시드니 공항’에 도착



필리핀 마닐라에서의 첫 번째 행선지였던 ‘리잘 공원(Rizal Park)’



‘마닐라 성당’의 내부 모습.



‘농아장애인학교’의 복도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었다.



‘농아장애인학교’ 학생들과의 기념촬영.



곤돌라에서 내려다 본 '블루 마운틴(Blue Mountains)'의 절경.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카누위에서 촬영한 팍상한의 절경.

했다. 시드니는 우리나라 기후와 정반대라 초겨울 날씨였다.

현지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겨울옷으로 갈아입었다. 점심을 먹고 우리가 방문한 곳은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이었다. '블루 마운틴(Blue Mountains)'으로 이동하는 길의 감동은 남달랐다. 기이한 암석과 나무, 잿빛하늘, 푸른 숲과 어우러진 동화 속 단층집이 차창밖에 즐지어 넘실거린다. 에코 포인트에 도착하여 세자매봉을 보고 스릴 만점인 급경사 케이블차를 타고 비명 속에 하강했다가 곤돌라를 타고 오르면서 절경을 감상했다.

연수 셋째 날은 페더데일 야생동물원 관광을 하였다. 호주에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호주에서만 서식하는 캥거루, 코알라, 에뮤(emu) 같은 희귀동물들이 많이 있다.

앞발차기 선수인 캥거루에게

먹이를 주며 사진도 촬영하고 느려 터진 코알라를 손짓으로 어르기도 한다. 코알라는 '유칼립투스'라는 나무의 잎을 먹고 사는 희귀한 동물이다. 야행성으로 낮에는 나무위에서 쉬고 밤에 유칼립투스 잎을 먹는다. 타조의 조카뻘 되는 에뮤(emu)도 멀리서 보았다.

‘로얄 재활센터’ 견학
전문·체계적인 맞춤형 재활치료
연수 넷째 날은 시드니에 위치한 '로얄 재활센터 (ROYAL REHABILITATION CENTER)'를 방문하였다.

시드니에 위치한 로얄재활센터는 우리나라의 재활병원과 흡사한 곳으로 주로 뇌손상 장애인과 척수손상 장애인들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입원 및 재활치료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병원 외부 정원에 보행훈련

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가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 대상자 170명에 스태프가 450명(사회복지사, 치료사,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재활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었다.

또한 시설 내에 재활치료를 완치되어 성공한 사례들을 게시하거나 영상물로 보여주고 있어 환자들에게 재활의지를 강하게 해주고 희망을 갖게 해주는 시스템이 무척 인상적이고 좋아 보였다.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개인 인간중심의 시스템 부재의 아쉬움을 새삼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시설이나 장비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욱 잘 갖춰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의 좋은 시설과 장비에 호주의 시스템이 접목된다면 장애인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좋을까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로얄재활센터로의 방문을 마친 후 향한 '오페라 하우스'를 보며 우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페라 하우스는 시드니 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물로써 1973년 10월에 완성되어 거대한 조개껍데기 모양 같고 다시 보면 돛단배 모양이다. 항만을 유람하는 디너 크루즈에 탑승하여 바라본 시드니 항 주변의 황홀한 야경은 감동 그 자체였다. 어디에 시선을 두어도 수

만 장의 '명화(名畵)'요, '명작(名作)'이었다.

여기서는 구도를 잡을 것도 없이 아무렇게나 카메라 셔터만 누르면 작품이 됐다.

다시 필리핀 마닐라로

연수 다섯째 날 우리는 다시 마닐라 호텔로 향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이제까지의 피로를 모두 뒤로하고 로비에서 아름다운 호텔의 정경을 즐기며 중앙회장님을 비롯해 관장님들과 담소도 나누며 이번 연수를 통해서 느낀 점을 서로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의 마지막 날은 마닐라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팍상한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계 7대 절경중 하나라는 팍상한 폭포에서 급류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카누체험'을 하게 되었다. 2명이 사공으로 구성된 카누를 타고 급류를 거슬러 올라간 후 폭포 정상에 도착해서 뗏목으로 갈아탄 후에 폭포를 직접 맞으며 다수 급류를 타고 내려오는 스릴만점의 신나는 경험이었다.

또한 계곡의 양 옆으로 펼쳐지는 팍상한의 절경은 그야말로 예술이었다. 그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인 내가 이제껏 시도해보지 못했던 도전이요, 짜릿한 성취감이었다.

여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마닐라로 돌아온 우리는

6월 12일 새벽 1시 10분,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연수 일정을 소화하느라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들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간의 일정을 되새기며 연수를 통해 느꼈던 다른 나라의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새로운 체험과 아쉬움,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긴장감과 미흡하고 불편한 점도 웃음으로 이해해주신 김정록 중앙회장님과 여러 관장님들에 대한 감사함 등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 잠을 뒤척였다. 그리고 새벽 6시30분, 일주일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았다.

해외 연수를 마치며

협의회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나로서는 이번 연수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함께해 주신 중앙회장님과 여러 관장님들의 배려와 관심 덕분에 이번 연수를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이번 연수를 통해 법인 산하 장애인 복지관장님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

이 글을 통해 연수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 주신 김정록 중앙회장님과 협의회 산하 장애인 복지관 관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연수 셋째 날, TV로만 보던 '코알라'를 드디어 직접 대면했다.



'로얄재활센터(ROYAL REHABILITATION CENTER)'의 내부 모습.



'로얄재활센터(ROYAL REHABILITATION CENTER)' 임직원들과의 기념촬영.

기사제공



박 선 하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복지관협의회장)

“장애인권리협약에 맞도록 장차법 개정 · 보완해야”

이은우 변호사, “권리협약에 모순되는 장차법 규정 무효가 될 것”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정록, 이하 장총련)는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법률과의 관계 재조명을 통한 장애인 인권 향상 방안 모색 토론회』를 6월 9일(목)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장애인권리협약)과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계를 살펴보고,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본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계’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6월 9일(목)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법률과의 관계 재조명을 통한 장애인 인권 향상 방안 모색 토론회』 모습.



장차법, 권리협약에 맞도록 개정 및 보완해야

법률사무소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차법인 국내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데, 장애인권리협약은 국제인권조약으로 장차법보다 실질적으로 상위규범의 효력을 발하게 된다”며 “하지만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은 현재 장차법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은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권리협약에 모순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들은 무효가 될 것.”이라며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들을 장애인권리협약에 맞도록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편, 장애인권리협약은 국내에서 헌법 규범의 해석 기준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인 규정에서 모순되는 헌법 해석은 부당하다.”며 “장애인권리협약은 사회권에 대한 새로운 헌법해석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사회권과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인 가용자원의 최대한을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법률의 위헌성 판단의 기준으로 보지 않아 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국제규약과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인 ‘진보적 달성 의무(가용자원의 최대한 활용, 핵심적 가치의 보장, 구체적 조치 의무)’를 규범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왔다. 대신 사회권에서는 국가의 현저한 일탈이나 부작위만을 위법으로 보는 견해를 고수해 왔다. 이는 국제인권규약에 대해 헌법 규범의 해석 기준으로 지위

를 인정하는 태도와 모순되는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권리협약 ‘적극적’ VS 장차법 ‘소극적’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장애인권리협약은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소극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규정하고 있다”며 “가능하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협약처럼 장애인의 권리보장법의 형태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한 교수는 국제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입법의 실체가 국민 일반에 대한 구속력 있는 법규범을 창출하는 것이라 할 때 외교통상부의 관료주의에 입입 및 의회주의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며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관행의 격으로 고착돼 옴으로써 의회입법의 원칙을 거스르고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제의 틀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것이라는 한계점을 지닌다고 우려했다.

한 교수는 “따라서 헌법 제6조의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의회주의, 법치주의 등의 헌법핵 내지는 헌법이념에 부합하는 형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국제 보편적 기준을 적용해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제위원회 박종은 위원장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권리협약과 동일하거나 더 진전된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정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대해 공감했으며, “누구보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과거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국내 법률보다 진전된 내용을 가진 국제 규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기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데 지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시급

장총련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서 사무총장은 “비준은 약속이다. ‘약속은 하지만 약속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차후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인권위원회 위원 피선거권을 주지 않도록 개정하는 등 비준은 각국의 자유라 하더라도 차별화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활동을 통한 국내법령 개정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와 장애정책팀 조형석 팀장은 “우리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 성안에 보여준 열의와 성과를 감안할 때 조약과 관련 법률들과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상치되는 국내법에 대한 개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권리협약의 가입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 지침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을 신장시킬 것이며,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정부보고서를 검토해 최종견해를 표시함으로써 국제적인 압력을 통한 실질적인 국내법령의 개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 구제’가 목적

법무부 인권정책과 이승한 과장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거나,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해 될 수 있는 한 국제법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요청됨은 당연하나 그 현실적 적용과 관련한 우리 현

법의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우리사회의 전통과 현실 및 국민의 법감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것 또한 당연한 요청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이 상이한 경우에 국제인권조약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국내법 규정에 따라 범죄로 처벌한 경우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국내법 조항이 국제인권조약의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된다는 적극적 판결을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존 입장에 따를 때,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상이한 국내법이 위헌으로 판단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이 장애인권리협약에 비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성격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과장의 주장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외에도 형법, 민법, 상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등 여러 국내법들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특히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고, 그 입법목적에 충실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인권법은 아닌 것이다.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나 다른 장애인 관련 법률을 통해 해결될 사안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달리했다.

“내 행복의 열쇠는 내가 갖고 있습니다”

방송인 김제동, 장애인야학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특강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불행해지고 나를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면 행복해진다. 내 행복의 열쇠는 내가 갖고 있다.”

방송인 김제동이 지난 5월 31일(화) 서울시 해화동에 위치한 노들장애인야학 주최로 야학 교육장에서 열린 특강 ‘사람이 사람에게’ 강사로 나서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 얘기했다.

김제동은 “내가 못생겼나? 흔히 누구든 사람을 보면 얼굴이 못생겼다, 아님 잘생겼다, 예쁘다 등으로 구분해서 말한다. 이것은 이 사회가 만든 규칙일 뿐”이라며 “사람이든 사물이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못생겼다, 잘생겼다’를 떠나 행복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내가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좋아해

야 된다. 상대방을 미워하면 상대방이 괴로운 게 아니라 스스로 괴로워지고 불행해진다”며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실망하지도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제동은 사람들이 흔히 행복의 척도로 이야기하는 돈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며 설명했다.

김제동은 “기업의 사장, 회장이 돈이 많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까?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보다 더 많은 고민과 걱정,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며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밥을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을 수 있다. 밥만 세끼 다 먹을 수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부자가 되는 셈”이라고 강

조했다.

이어 김제동은 “어렵게 사는 나라의 어린이에게 한 달에 천원만 기부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부자다. 부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만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이라고 정의 내렸다.

김제동은 “우리들 삶은 행복과 불행이 함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중 행복 즉 기쁜 일이 더 많이 생기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불행한 일을 극복하면 그게 바로 기쁜 일이 된다. 웃으면서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기쁜 일이 된다”고 말했다.

김제동은 “불경에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는



▲ 방송인 김제동이 ‘사람이 사람에게’ 강사로 나서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뜻이다.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귀하게 생각한다”면서 “나 자신을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면 행복해진다. 내 행복의 열쇠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 “난 괜찮습니다”

“나보고는 작다고 해도 난 괜찮아요. 당신들은 세상을 크게 보지만 나는 자세히 보고요. 당신들은 눈에 먼지가 들어가지지만 나는 안들어갑니다. 타인이 만든 기준에 놀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남들이 말하는 것, 기준에 대해 그렇게 생각 안할 자유가 있습니다. 난 괜찮습니다.”

■ 가장 좋은 충고는 믿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충고는 믿어주는 것입니다. ‘다 알순 없지만 이해합니다.’ 힘들다는 사람에게 힘내라는 건 또 다른 폭력입니다. 깊이 이해해주고 돌려해주면 됩니다.”

■ 행복을 선택하면 행복해진다

“주위 여건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갈리는 게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 늘 행복하지 마세요

“늘 행복하지 마세요. 늘 행복하면 사는 거 재미없습니다. 날씨가 늘 맑으면 세상은 사막이 됩니다. 때론 비도 오고 눈도 와야죠.”

■ 대가 없이 좋아하기

“누가 꽃보고 싫다고 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산보고 뭐라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꽃

김제동이 전하는 ‘행복해지는 방법’



▲강연이 끝난 뒤 장애인노들학교 학생들과 김제동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에이블뉴스

과 산한테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바라지 말고 대가없이 좋아해버리면 됩니다. 바라는 게 있으면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면 자신만 괴롭습니다.”

■ 자학 말고 자신 돌아보기

“우리들은 ‘저 사람 때문에 화난다, 저 사람만 바뀌면 좋겠어’라면서 화를 내지요. 늘 남의 탓만 하면 내 행복의 열쇠는 남이 갖는 겁니다. 타인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해진다면 내 주인은 타인이 되는 거죠. 결국 ‘저 사람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내가 괴로워하는 겁니다. 타인때문에 자학하지 말고, 자길 돌이켜보면 됩니다.”

■ 힘내지마

“많이 힘드세요? 힘들면 힘내지 말고 그냥 계세요. 힘 안내도 되고 있는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힘들면 힘들구나, 하면 됩니다.”

■ 로또 당첨되는 법

“어떤 사람이 ‘제발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라며 백일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먹혔는지 하나님이 갑작스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앞에서 한마디 했죠. ‘야 임마, 제발 복권 좀 사고 얘기해라!’”

■ 여러분은 옳습니다

“나는 늘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합니

다. 어떤 선택을 내렸다면 분명 그 선택이 늘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구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깊이 고민하는 사람은 ‘자신’이니깐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분명 어떤 선택을 했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늘 여러분은 옳습니다.”

■ 상처받지 않기

“난 어떤 누구의 말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계속 상처에 대해 생각하면 나만 피곤해집니다. 대신 충고와 비판은 충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 ‘맛보아 주세요’

“어떤 어머니 한분이 음식을 갖다주시면서 ‘맛보아 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는데 말이죠. 의아해하는 제게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하면 맛있게 먹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어떤 맛을 느끼든 자기 자유가 있는 거니까요. 자신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은 남의 자유도 존중하는 법이죠.”

■ 왼쪽 뺨 내밀기

“성경 말씀에 보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뺨을 맞기만 하면 나만 울면서 괴롭고..때린 사람이 주인이 되는데요. 뺨을 얻어맞고 ‘어때, 왼쪽 뺨도 때릴래?’라고 하면 상황의 주인은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출처-에이블뉴스〉

고용부·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2만명 취업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올해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28만명 중 2만명이 취업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6월 9일(목)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그 대상을 4만명으로 늘리는 등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 선별 기준을 한층 강화해 고용센터에 의뢰할 취업 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다.

또 근로능력자의 역량에 맞는 자활·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지역의 고용(고용센터)·복지(자활센터) 전문가가 자활역량을 평가하는 사례조정 회의를 48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자치단체에 배치돼 재심사 대상 수급자를 발굴하는 업무 등을 하는 직업상담사를 지역별 수급자 현황 등을 고려해 차등·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의 고용센터 80곳에 취업성공지원팀을 신설하고 수급자의 역량에 맞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집단 상담 프로그램 참여(20만원 지원)를 의무화하고, 심리적 장애가 있는 수급자가 전국의 고용센터 41곳에 개설될 전문기관의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자부담 없이 훈련비를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운전면허 등 저학력자 대상 기초직업 능력 향상 훈련도 제공한다.

수급자의 취업을 돕고 취업에 성공한 수급자가 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지하지 않도록 근로유인 강화 대책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2만명에게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장애인표준사업장 (주)CPL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장애인.)

수급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연간 860만원까지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수급자가 탈수급하면 최대 100만원인 취업성공금에 더해 탈수급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취업한 수급자가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자를 올해 1만5천명으로 늘리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하면 의료 및 교육 관련 비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출처-에이블뉴스〉

‘제21회 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 작품 공모

문학 8월 19일, 미술 8월 16일부터 접수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용흥, 이하 개발원)이 ‘제21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의 출품작을 공모한다.

먼저 문학상은 운문부(시, 동시), 산문부(단편·중편소설, 수필, 동화)로 나뉘며, 오는 8월 19일(금)부터 23일(화)까지 인터넷 ‘다음 카페’ (cafe.daum.net/koddi11)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학상 부문별 대상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수여되며 부상으로 각각 500만원이 주어진다. 이밖에 최우수상(부분별 각 1명)에게는 상장 및 부상 300만원, 우수상(부분별 각 3명)에게는 상장 및 부상 100만원,佳作(부분

별 각 5명)에게는 상장 및 부상 3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또한 미술대전은 1부 한국화, 서양화, 공예·조각과 2부 서예, 문인화, 전각, 서각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작품은 먼저 1차로 오는 8월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사진으로 인화해 접수한 뒤,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대해 8월 30일(화)부터 31일(수)까지 완품을 접수하면 된다.

2부(서예, 문인화, 전각, 서각) 작품은 8월 16일(화)부터 8월 18일(목)까지 출품작, 출품원서, 복지카드 사본, 출품료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단, 서예와 문인화 부문 장려상 이상은 ‘친필 휘호(실기)’ 후 최종확정 된다.

미술대전 1·2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각 500만 원의 부상이 주어진다. 우수상 3명에게는 상장과 부상 200만원, 장려상은 각 부문 6명에게 상장과 50만원, 특·입선 수상자에게는 상장이 각각 수여된다.

특히 올해 미술대전에서는 추천작가의 작품도 접수 받아 1·2부로 나뉘 특별상(복지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여하고, 초대작가로 인증할 예정이다.

문학상과 미술대전 수상작품은 각각 모음집과 화집으로 발간되며, 심사결과는 9월 중 개별 공지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www.koddi.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 02-3433-0640〉

서울시, ‘2020서울주택종합계획’ 발표

2020년까지 72만호 공급...주택바우처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7일) 임대주택 20만 가구 등 총 72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2020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 오는 2020년까지 최소 72만호의 주택이 공급되고, 장애인 등을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가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6월 7일(화) 중장기 주택정책 가이드라인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향후 10년을 대비한 핵심정책으로 2020년까지 총 72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 주택보급률을 95%까지 높여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72만호 중 37만호는 멸실로 인한 대체 공급분이고, 35만호는 신규공급 또는 순증가분이다.

시는 매년 평균 2만호씩 공공임대주택 총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장기전세주택 건설

과 재개발·국민임대·다가구 매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다가구 매입은 광진, 영등포, 도봉, 금천 등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구위로 추진한다.

특히 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를 현재 8200 가구에서 5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바우처는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구, 150% 이하 중 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 가구에 매월 4만3000~6만5000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해 순환공임대주택을 2015년까지 5000호를 확보해 공급하고, 미 수혜자에 대해서는 주택바우처를 통해 임대료를 보조해주시기로 했다.

인천시, 최신형 장애인 콜택시 10대 증차



새로 구입한 최신형 장애인 콜택시.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 이하 시)는 인천교통공사에 위탁·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 차량 10대를 증차·운행한다고 지난 7일(화) 밝혔다.

시는 그동안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장애인 콜택시

를 증차하고 있

으며, 운전봉사원과 상당원 등 운영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시는 지난해까지 104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했으나 지난

4월 8대를 증차한데 이어 이번엔 10대를 더 늘려 총 122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번 차량증차를 통해 예약시간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증차되는 차량 10대를 최신형인 슬라이딩 리프트 차량으로 구입해 승하차시 이용편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콜센터(1577-0320)로 이용신청을 하거나 예약하면 되며, 이용요금은 2km이내 1,000원, 2~10km이내 km당 200원이 부과된다.

강원경찰, 지적장애 여성 성폭력 ‘보호’

‘사회적 약자 수호천사’ 시스템 구축·운영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옥도근)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수호천사’ 시스템을 구축·운영기로 했다. 이는 도내 여성 성폭력 피해사건 10건 중 1건의 피해자가 지적장애 여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강원경찰청의 7일(화)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5월말까지 도내 여성·성폭

력지원센터에서 접수 처리한 여성 성폭력 피해사건 250건 중 28건(11.2%)이 지적장애 여성이었다. 또한 가해자들은 주로 같은 동네 이웃, 지인 등 평소 주변에 잘 아는 자들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강원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 여성 및 지적장애인 단체, 지역 보건소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사회적 약자 수호천사’ 시

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구성되는 수호천사들은 매월 주기적으로 도내 지적장애 여성의 집을 직접 방문해 상담과 치료, 복지, 범죄 신고요령 등을 홍보하게 된다. 또한 지적장애 여성 거주지 주변에서의 예방 활동을 통해 범죄 접근을 사전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강원경찰청측은 “지적장애 여



강원경찰청 전경.

성은 성폭력 등 범죄 피해 발생 후 신속한 신고와 피해회복이 어려워 2차 및 상습적 피해가 지속된다”면서 “자기 의사표현 및 방어 능력이 미흡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에이블뉴스〉

울산,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 경기장’ 개장



6월 14일 울산 동구 전하동에 건립된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의 개장식에 참석한 거스 히딩크 감독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진출의 주역이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의 이름을 딴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 경기장(이하 경기장)’이 6월 14일(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개

장했다.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으로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만들어진 경기장은 히딩크 감독이 장애아동을 위해 기증한 축구장으로, 총 사업비 2

억9000만원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1억8000만원, 히딩크 재단이 1억1000만원을 부담해 기존의 현대중공업 소유였던 전하시민운동장을 장애인전용 풋살구장으로 리모델링한 것이다.

히딩크 감독은 지난 14일 울산을 방문, 개장식에 참석하는 한편 장애 학생들에게 운동복을 선물로 전달하고 시각장애 어린이와 5명씩 팀을 이뤄 축구경기를 벌였다.

히딩크 감독은 “여러 나라 중 한국이 가장 신나는 기억을 갖고 있는 나라다. 이곳에서 엘리자베스의 도움으로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꿈을 현실화하게 됐다”며 “아이들과 축구할 수 있어 행복하다. 함께 꿈과 희망을 이뤄가자”고 말했다.

고양, 중증장애인 택시요금 50% 할인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 이하 시)가 중증장애인(1·2급)을 위해 택시요금을 50% 할인해 주고, 이용이 쉽도록 택시 기사들이 직접 승·하차를 돕고 있다고 6월 13일(월)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양시와 택시업계는 2003년 10월부터 중증장애인 택시요금의 50% 할인요금을 25%씩 각각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833명의 중

증장애인이 택시를 이용했으며 1,600여만원의 요금을 할인 받았으며, 올해 5월 말까지 1,794명이 약 500여만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누렸다.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콜센터(고양콜 1588-1382, 신우콜 1577-1325, 일산바로콜 1588-1385)를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출처-에이블뉴스〉

홍성,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

수급자, 1회 300만원 4회까지 지원

강원도 홍성군(군수 김석환)은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도와 인구증가를 도모키 위해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인공수정 시술비 등 시술비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따르면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관내 난임부부들이 건강보험에서 고액의 체외수정시술비

나 인공수정시술비 등이 적용되지 않아 농어촌지역 난임부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홍성군은 지역 난임부부들의 시술비를 지원, 출산을 장려키 위해 체외수정 시술비로 1회에 180만원씩 4회 한도로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에 300만원씩 4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 ‘장애인 이동세탁소’ 호응도 높아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의 특수시책으로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이동 세탁소 운영사업’이 시행 6개월을 접어들면서, 거동이 불편한 도내 장애인가정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애인가정의 세탁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고, 취약한 장애인가정의 개인위생을 개선하고자

시작한 이 사업은, 5월말까지 신청건수가 501건에 이르는 등 서비스를 경험한 주민들로부터 입소문이 나면서 신청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방문가정에 대하여 단순 세탁서비스뿐만 아니라 집안청소, 방역, 병원이송, 물리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재가 장애인가정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

다고 한다.

이러한 호응에 따라 충청북도는 “운영요원의 보강, 운행횟수 증편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이동세탁을 원하는 자는 장애인단체연합회 홈페이지(www.cbada.or.kr)나 전화(☎043-262-720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예산, ‘희망 129센터’ 운영

예산군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 129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군 주민복지실과 희망 129센터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이 취약계층 발굴, 위기가구에 대한 종합상담, 지역자원 서비스 발굴·

연계, 사례관리 대상 가구의 욕구조사 등을 수행한다.

특히 전문요원은 보건복지콜센터와 연계된 상담전화를 활용해 정기적인 안부전화를 실시하고 출장 및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 등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조직위’ 출범

오는 9월29일~11월27일까지 전국순회하며 열려

2011 장애인문화예술축제를 꾸려나갈 조직위원회가 출범했다.

한국DPI는 6월 2일(목) 오후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11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채종걸 조직위원장(한국DPI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슬로건을 보면 알듯이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없이 삶 속에 혼자서 넘기 힘든 것들을 함께 넘는다를 한 문장으로 ‘벽을 넘어서’ 이다”면서 “장애인이 사회와 호흡하면서 자신만의 예술적 향기를 가지고 세상과 소통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채 위원장은 “이번 장애인문화예술축제는 개막식을 비롯해 장애문화예술축전, 예술제, 다양한시선 사진공모전 등을 진행하기 위해 12개 공동단체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제주, 경남, 경기, 서울 등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출연진은 120개팀, 약 3천여명정도 인원이 될 것이고 관객들도 2만5천여명으로 많은 인원들이



2011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출범식에서 제주DPI, 한국장애인사진협회,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휠 등 총 8개 단체가 협약식을 가졌다. ©에이블뉴스

참여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채 위원장은 “이번 축제로 인해 모든 장애 예술인들이 한단계 성숙하고 발전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현재의 이런 뜨거운 성원이 이후에도 지속되어 이번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특히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이 출범식은 성공적으로 이 축제를 잘 이끌어가는 의미도 있

지만, 이제 장애인도 당당하게 문화와 예술의 향기를 누리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역동적인 주제로 우뚝설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문화예술축제가 국민들이 보기에 ‘멋지고 잘한다’ 믿음을 얻으면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될 수 있고 이를 정부나 국회에서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내년 예산은 배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회는 특히 전국을 순회하며 장을

펼친다고 하니 기대치가 높다. 특히 내가 경남 마산 출신인데 창원에서 할 때에는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지지했다.

이정선 대회장(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 3번째로 축제를 이어가는데 힘을 더할수록 가슴이 벅차온다.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들, 많은 분들이 실력을 펼칠 수 있고 끼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의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만큼 개개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조직위에 말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더욱 발전하고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번 축제가 이들이 문화예술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회사 이후에는 제주DPI, 한국장애인사진협회,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 등 총 8개의 단체가 협약식을 갖고 이번 축제를 함께 이끌어 갈 것을 선포했다.

이어 참석자들과 함께 장애인문화예술 응원메세지를 넝쿨잎에 적는 행사와 함께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의 단막 퍼포먼스,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가수 심보준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한편 2011 장애인문화예술축제는 오는 9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서울, 제주도, 경남, 경기 등 전국으로 순회하며 진행된다. 프로그램도 사진전을 비롯해 음악제, 연극제, 미술 교류전, 회화·서예전, 학술심포지엄 등 다양하다.

〈출처-에이블뉴스〉

외인부대, ‘장애차별萬·畫·展’ 개최

6월 10일부터 전국 순회 전시회 실시

장애 차별을 고발·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작가로 결성된 ‘외인부대’의 ‘제4회 장애차별萬·畫·展(만화전)’이 6월 10일(금)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열린다.

전시회는 10

일(금)부터 16일(목)까지 서울시 지하철 4호선 혜화역 갤러리, 17일(금)부터 28일(화)까지 충청남도 논산문화예술회관, 29일(수)



‘장애차별萬·畫·展’ 홍보 포스터

부터 7월 5일(화)까지 충남 천안시민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외인부대’는 시각적 예술매체를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을 고양하고

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장애인, 비장애인 작가 21명이 2007년 결성한 자조모임이다.

“좌절, 절망, 장애의 굴레를 벗는다”

‘펀&아트컴퍼니’, 부산국제무용제 폐막 공연

장애인 주축 무용단인 ‘펀&아트 컴퍼니(Fun&Art Company)’가 6월 7일(화) ‘제7회 부산국제무용제’의 폐막 공연을 장식했다.

‘펀&아트 컴퍼니’는 지난 2008년 (사)빛소리친구들 소속의 척수장애인, 뇌성마비 장애인 등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국내 최초의 장애인 무용단이다. 현재 비장애인 전문 무용수까지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희’와 ‘페르소나’ 등 발레와 한국무용 등이 어우러진 다양한 작품을 창작해 공연하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왔다.

이날 폐막식에서 공연한 ‘하늘빛 오렌지’는 지난 3월 26일 서울 나루아트센터에서 첫선을 보여 큰 호응을 얻었던 작품이다. (사)빛소리친구들의 최영묵 대표는 “이번 부산국제무용제 폐막식 초청공연을 통해 좌절, 절망, 장애라는 굴레를 벗고 춤이라는 움직임과 호흡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감동을 나누고자 한다”고 공연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들의 공연에 대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우광혁 교수는 “장애인들이 권위있는 국제무용제에 참가하는 것을 이전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라며 “그들의 무용 실력과 창의력이 일



‘펀&아트컴퍼니’ 공연모습. ©펀&아트컴퍼니

반 무용수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도 놀랍다”며 경의를 표했다.

장애인e스포츠 등급분류 기준 마련

eSC1~eSC8로 나뉘…9월 세계대회 때부터 적용

‘장애인e스포츠’의 활성화와 공정한 대회 진행을 위한 ‘스포츠등급분류 기준’이 마련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5월 25일(수)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이하 연맹)과 함께 ‘장애인e스포츠 스포츠등급분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 안에 따르면 등급은

eSC1(지체, 양측사용), eSC2(지체, 일측 사용), eSC3(뇌병변), eSC4(시각), eSC5(청각·언어장애), eSC6, eSC7(지적), eSC8(자폐성)로 나뉘어 있다.

이중 eSC6은 신체적 장애 중 신장·심장·호흡기 등 내부기능 장애, 외부기능 장애(안면장애),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장애

가 모두 포함된다.

이와 관련 진흥원 강경석 게임산업팀장은 “장애인e스포츠 스포츠등급분류는 그동안 일반인에 보편화되었던 e스포츠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를 용이하게 해 사회적 비장애인과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맹 정도명 사무국장은 “e스포츠는 우리나라 인구의 9%를 차지하는 장애인들에게 신체·정신적 능력 강화, 자신감 회복, 여가선용 기회 제공 등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연맹은 이번에 마련된 분

류기준안을 오는 9월 개최되는 ‘세계장애인e스포츠대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장애인e스포츠 스포츠등급분류 기준(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콘텐츠도서관에서 대여할 수 있다.

〈출처-에이블뉴스〉

‘아·태 선수권대회’ 3위 달성

한·일전 2:0 승리…19년 만의 쾌거

농아축구대표팀

대한민국 농아인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아·태평양농아인스포츠연맹(APDSC)이 주최한 ‘제2회 아시아·태평양농아인축구선수권대회(이하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

지난 5월 14일(토)부터 26일(목)까지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25일(수) 열린 3·4위전에서 일본에 2:0 승리를 거두며 19년 만에 3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와 같은 선전에 대한농아인축구협회는 “내년 7월 터키에서 개최되는 ‘세계농아인축구선수권대회’ 출전권 획득과 내년 5월 서울에서 열릴 ‘제7회 아시아·태평양농아인스포츠대회’에서의 금맥 사냥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제2회 아·태농아인축구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농아인축구 국가대표팀이 3위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환호하고 있다. ©대한농아인축구협회

의족 스프린터 “올림픽이 보인다!”

국제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400m서 5위



2012년 런던올림픽에 도전하고 있는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의족 스프린터’로 유명한 오스카 피스토리우스(Oscar Pistorius, 25세, 남아프리카공화국)가 2012년 런던올림픽 출전 꿈을 이어갔다.

피스토리우스는 6월 12일(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아이칸 스타디움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400m 결승에서 45초69를 기록해 5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종아리뼈 없이 태어나 생후 11개월부터 양쪽 다리를 쓰지 못한 피스토리우스는 탄소 섬유 재질의 보철 다리를 붙이고 레이스에 나서

고 있다. 패럴림픽의 절대강자인 그는 일반 선수와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출전에 도전했지만 아쉽게도 기준기록에 0.3초가 모자라 뜻을 이루지 못했다.

피스토리우스는 이날 레이스에서 개인 최고기록인 45초61에 0.08초 뒤졌지만 8명이 된 레이스에서 일반 선수를 3명이나 따돌려 충분히 기량을 겨뤄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한편 피스토리우스가 8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내년 런던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준기록 45초25을 넘어야 한다.

MLB 텍사스, 하반신 장애인 신인 지명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하반신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미국 메이저리그의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조지아대 야구팀 외야수 출신의 조너선 테일러(Johnathan Taylor). 6월 11일(토, 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은 최근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33라운드에서 테일러를 지명했다.

테일러는 대학 시절 117경기를 소화하며 타율 3할1푼2리를 때린 유망주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3월 7일 경기 도중 동료 외야수 잭 콘과 부딪히면서 목뼈가 부러진 탓에 하반신 마비가 왔다.

텍사스의 스카우트인 킵 패그는 “우리는 테일러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관심을 가져왔다”며 “텍사스는 테일러의 열정과 능력을 좋아한다”며 지명 배경

을 설명했다. 현재 테일러는 재활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 하위 라운드에서는 이처럼 즉시 전력감이 아닌 선수를 지명하기도 한다. 최근 휴스턴 애스트로팀은 올해 40라운드에서 수업을 하다가 사고로 목을 다쳐 재활을 하는 투수 버디 라모테를 지명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서울시, 장애인자립자금 장기저리 대출

한도액 무보증대출 1200만원, 보증대출 2000만원 연이율 3%…용자기간 5년 거치 및 5년 상환 조건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및 기술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신청’을 받고 있다고 지난달 25일(수) 밝혔다. 대여대상은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이다. 한도액은 무보증대출 1200만원, 보증대출

2000만원이며, 5000만원 이내에서 담보에 의한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율 연 3.0%, 용자기간 5년 거치 및 5년 상환 조건이다. 무보증대출 대상자는 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 포함한 기존의 대출금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이상인 사람이 해당된다. 보증대출을 받으려면 연간 2만원이상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연간소득 800만원이상인 보증인이 필요하다. 대출액이 1000만원 초과일 경우 보증인 1명을 추가해야 한다. 거치기간 중 이자와 상환기

간 중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연 4회 중 대출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희망자는 창업·생업용 자동차 구입, 취업을 위한 기술훈련 등 자립자금 대여목적에 적합한 자금사용 계획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무보조기기,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및 의료비, 기타 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자립자금 대여가 가능하다. 다만, 단순 생활가계비나 주택전세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 학자금 등의 용도 혹은 현재 근로자는 창업 관련 용도로 대출 받은 수 없다. 희망자는 자금대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갖추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대출은 구청의 서류심사와 국민은행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이뤄진다. 장애인자립자금 대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구청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3707-8042)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에이블뉴스>

지경부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 지원 확대” 지역난방 혜택 확대…연탄 쿠폰 인상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저소득층의 전기, 지역난방 등 에너지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지식경제부(장관 박재완,

이하 지경부)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자료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비해 전기요금을 조정할 때 서민층을 배려할 수 있는 보

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소형 임대주택 거주자 중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는 지역난방 복지혜택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연탄 보조금도 확대해 저소득층 연탄보조 쿠폰 금액을 16만9천원에서 내년 19만2천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밖에 저소득층에 1개월분의 연료를 지원하는 긴급연료 지원 사업의 대상 가구 수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긴급연료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등이다. 지경부는 전기요금 로드맵 수립과 관련해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강화하는 등 요금 체계를 개선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 고용정보

	업종	업 체 명	근무지	연령	성별	근무내용	급여	보험	연락처	담당자
1	생산직	(주)정립전자	서울시 광진구	55세 이하	무관	PCB조립업무	월 902,880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2	생산직	(주)삼화유비텍	경기도 화성시	40세 이하	남	불량품 유무 선별작업	월 105만원/상여금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3	미화직	(주)오투기토탈시스템	서울시 중구	62세 이하	여	빌딩 미화직	월 95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4	사무직	한강공인중개사	서울시 동작구	45세 이하	무관	사무직	월 10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5	경비직	(주)인덕종합관리	서울 전역	65세 이하	남	아파트 경비직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6	경비직	(주)영시큐리티	서울 전역	65세 이하	남	학교 경비직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7	서비스직	(주)나라개발시스템	서울 전역	65세 이하	남	소독원	월 14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8	미화직	(주)나라개발시스템	서울 전역	68세 이하	여	아파트 미화직	월 8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9	미화직	(주)유전실업	서울 전역	68세 이하	여	건물 및 은행 미화	월 8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10	생산직	(주)씨피엘	경기도 안산시	40대 이하	무관	제품검사 및 사출	월 902,880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11	서비스직	(주)엘에스비네트웍	경기도 안산시	40대 이하	남	택배분류원 시간제	시급5,000원 하루5시간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12	서비스직	(주)엘에스비네트웍	경기도 안산시	40대 이하	남	택배분류원	월17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2011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의 글짓기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오바타 에이코 씨(오른쪽) 부부.

독자수기



본지에 게재된 글은 지난 2011년 6월 3일(금)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가 개최한 『2011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의 글짓기 부문에서 ‘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오바타에이코(49)의 작품으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현재 ‘마음의 장애’를 안고 있는 큰 딸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긴 작품입니다.

‘다문화 아이의 마음 장애’

오바타 에이코 (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내 아이들

일본인인 저는 지난 92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의 두아이들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로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장애인이고, 제가 한국말에 서툴러 걱정을 많이 했지만 두 아이 별 문제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하지만 큰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난 후, 저와 아이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고 인정이 많았던 초·중학교 생활과 다르게 입시경쟁으로 치열한 고등학교 생활은 우리 아이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는 다른 아이들과 그다지 차이가 없었는데...’라고 생각하며 우리 아이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런 생각으로도 모자라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이를 다독이지 못하고 또 우리나라 교육현장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터라는 것도 깊이 몰랐던 제 불찰은 제 아이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큰 딸

1학년 과정을 마감하는 12월, 기말고사를 앞두고 큰 아이는 학교를 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는 물론, 밥도 먹지 않았고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2달 반 동안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힘없이 지냈습니다. 앞으로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없

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해봤지만 닫혀버린 아이의 마음을 여는 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내 딸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알 수 없어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해도 우리 가족은 늘 웃음이 가득했었지만 큰 아이의 방향으로 집에서 웃음의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학원에 보내면 조금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으로 닫아버린 아이의 마음을 열고자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겠지요.

큰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때를 써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이고, 엄마가 한국말에 능숙치 못한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착한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아픈 속을 애써 참아왔을 것이고 그 오랜 아픔이 큰 아이의 마음에 큰 생채기를 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큰 딸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족끼리 먹은 적이 없는 탕수육을 시켜 먹기도 하고 웃도 사줬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고 싶습니다.

언젠가 딸에게 “장애를 가진 부모 밑에 태어나서 어려운 점이 있었니?”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미안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이도 저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감수성이 예민할때인 사춘기가 시작되고 난 후에는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혼자 얼마나 복잡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부모로서 면목이 없고 지금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옵니다.

의사소통...다문화 가정의 난제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마음 깊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을 비롯한 많은 ‘다문화 가정’의 큰 어려움이며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문화 아이들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큰 원인이 되고 마음의 장애가 되는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큰 아이가 고민을 제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것을 받아주기에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습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습관은 가정을 떠나서 사회에서도 작용하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을 이번에 우리 아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문화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마음의 장애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는 모르지만 선천적인 장애를 일으키고 태어난 아이라면 그 아픔을 어찌했습니까?

자기 탓이 아닌데도 관계없이 그런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누구나 한번쯤은 부모를 원망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랬습니다. 다문화 아이들의

마음의 장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번쯤 ‘왜 우리부모는 외국인인가?’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딸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산이 있으면 강이 있듯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모든 희망을 주는 새싹이 올라오는 봄이 옵니다. 지금은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다문화 아이들에게도 살아가는 데 꼭 좋은 길이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큰 아이와 함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다문화 가정에 좋은 귀감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장애로 인하여 마음고생을 해왔고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장애도 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꼭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모국을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를 얻었습니다. 20년쯤 되는 지금 다문화 가정의 아이의 마음 장애가 다시 내 인생 속에서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입장에서 사랑을 중시하고 풀어 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좋은 길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일본 대지진을 통하여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연의 재난은 인간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아픔을 넘어서 일본에서는 물론, 세계 각 나라에서 인종과 국경을 넘어서 어로 서로 도우면서 일본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나도 모르게 희망을 얻었습니다. 다문화 아이들이 받 았던 고통 그만큼 세계에 나아가서 고통을 이겨낸 힘찬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 믿고 또 그런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마음 장애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요점 같습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갈 것이며 아이들에게도 자랑스러운 다문화 아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장애는 악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주어지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꼭 그 숙제를 풀고 사랑의 승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2011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시상식에서의 오바타 에이코 씨(왼쪽 두 번째).

‘후원’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스포츠토토, 나눔바자회 성황리 종료



나눔바자회 '스포츠와 함께 더불어(Double Up)'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재단 이만복 부회장(가운데)과 국내 8개 체육단체 선수들이 수익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스포츠토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포토가 6월 8일(수) 서울시 청계광장에서 열린 나눔바자회 '스포츠와 함께 더불어(Double Up)'가 스포츠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스포츠 균형발전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기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바자회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포토를 비롯해 한국프로야구연맹(KBO)과 한국프로농구연맹(KBL)를 비롯해 총 8개 단체가 참가해, 각종 스포츠용품과 의류 판매는 물론 유명 스포츠스타의 사인회와 애장품 경매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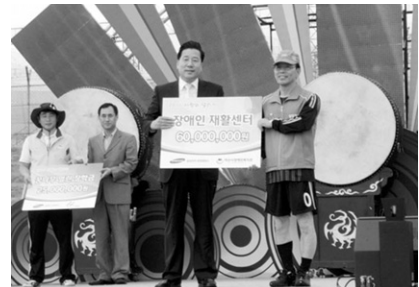
특히 이날 바자회에서는 여민지(축구), 김효변(농구), 김연경(배구) 선수 등의 '사인회'가 마련돼 인기 스포츠스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고, 스포츠스타들이 자신이 기증한 애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스포츠스타 애장품 경매'가 열려 스포츠팬들의 열띤 경매 열기 속에 모두 낙찰됐다.

이 밖에 해외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이청용(잉글랜드 볼턴원더러스), 기성용(스코틀랜드 셀틱), 박주영(프랑스 AS모나코), 구자철(독일 볼프스부르크) 선수 등의 사인이 담긴 유니폼과 사인볼, 프로야구 이병규(LG 트윈스),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선수 등의 사인볼과 유니폼 등의 현장경매가 진행됐다.

한편, 이번 나눔바자회를 통해 모인 모든 수익금과 후원금은 불우한 환경의 비인기종목 스포츠 꿈나무와 지적발달장애인들의 올림픽인 스페셜올림픽에 참여하는 다운증후군 선수를 후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재단 이만복 부회장은 "이번 수익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워나가는 스포츠 꿈나무는 물론 전국의 불우한 아동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요긴하게 쓰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삼성전자온양사업장, 아산장복에 후원금 기부 총 6000만원...체력단련실 건립에 사용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이창호 관장(좌측)과 삼성전자온양사업장 정재륜 센터장(우측)이 후원증서를 들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센터장 정재륜)이 6월 1일(수) '2011 제18회 장미축제' 행사장에서 아산시 장애인복지관(관장 이

창호, 이하 아산장복)에 장애인 재활센터 마련 후원금 6000만원을 기부했다.

후원금 6000만원은 지역 장애인들의 심신단련과 재활을 위해 아산시장애인복지관 내에 체력단련실 건립에 쓰일 예정이다.

이창호 관장은 "이번 후원금으로 장애인복지관 내에 마련되는 체력단련실은 아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은 정기적인 금품후원과 물품후원, 자원봉사 등을 통해 지역 장애인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6개 시·도 협회와 232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480만 장애인들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회원구분

일반회원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후원금 납부방법

- 지로, 자동이체 CMS
-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신청

- ① 전화신청 : ☎02)796-4280
-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2011년 5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강지민, 김구환, 김성우, 김정빈, 김진호, 김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환경, 남용원, 민속박물관, 박소연, 박종형, 반형만, 서재훈, 손영주, 시난이, 신세계백화점, 양순연, 유재복, 윤주석, 윤채환, 이상돈, 이설희, 이은정, 이재호, 이지수, 임재종, 정은연, 조태동, 주명희, 주승운, 주영래, 주영우, 최옥란, 현대자동차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480만 장애인들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날말맞추기 CROSSWORD

응
모
요
령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답
힌
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6월 3일(금)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제24회 전국장애인종합○○○」

	★1					
	2		3		4	
5			6			
7	★8					
			9			
	10				★11	



지난호 정답

1★ 베	이	컨		2 광	복	3 절
니			4 두	부		권
5 스	6 타		보		7 정	도
	8 개	9 미		10★ 이	치	
		11 담	12 덕			13 동
14 귀	15 추		혜		16 수	요
	17★ 징	병		18 공	배	

5월호 정답

예
술

당첨자

강소원 대전 동구 가양동
정민주 인천 연수구 동춘동
김철환 전북 완주군 소양면

| 가로열쇠 |

- 꼭대기의 가운데를 눌러쓰는, 뺨이 둥글게 달린 신사용의 모자
- 배우가 각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말과 동작으로 관객에게 보여 주는 무대 예술. 남을 속이기 위하여 꾸며 낸 말이나 행동.
-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원료로서의 광물, 산림, 수산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화학> 동물체의 주 영양소가 아니면서 동물의 정상적인 발육과 생리 작용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유기 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비교적 소량이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는다.
- 문학과 예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법률>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
- 1513년에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가 지은 책. 군주의 통치 기술을 논한 것으로, 분열된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해서 군주는 강한 결단력을 가지고 권모술수의 수단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근대 정치학의 고전(古典)이 되었다.
- <민속> 음양(陰陽)과 복술(卜術)에 관한 이치 및 그 실현 방법.

| 세로열쇠 |

- <역사> 조선 시대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식 국립 병원. 광혜원을 고친 것으로, 고종 31년(1894)에 였었다.
- <문학> 미국의 작가 멜빌이 지은 해양 소설. 흰 고래 모비 딕에게 한쪽 발을 잃은 후 복수의 화신이 되어 버린 노선장 에이하브의, 광기와도 같은 추격을 뼈대로 운명에 도전하는 인간을 상징적으로 그렸다.
-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
- 사람이 출입할 때에 자동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문. 광학계를 차단함으로써 작동하는 방식과 문아랫부분을 밝은 사람의 무게에 의하여 작동하는 방식 따위가 있다.
- 향토방위를 위하여 1968년부터 예비역으로 편성한 비정규군.
- 사물의 이치나 지식 따위를 해명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일반화한 명제의 체계.

틀린크림찾기 DIFFERENT SEARCH



매달 정답자 세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쉬는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로부터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답례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물렌징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아인美
Natural Beauty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틀린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 WAKE UP!!

전국장애인단체 활동가대회



◆ 대회개요

- 대회주제 : '감성' Wake up!! (조심의 감성을 기억하기)
- 일시 : 2011. 9. 20(화) - 2011. 9. 22(목)
- 장소 :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제주시 애월읍 소재)
- 참가대상 및 규모 : 전국장애인단체 활동가, 진행요원, 자원봉사자 등 약 200여명

◆ 주요내용

- 주제강연
- 모듈별 토론
- 제주테마기행 : 문화명소 탐방, 체험기행 등
- 활동가 교류의 시간

참가신청

6월말 홈페이지(www.kappd.or.kr) 공지예정
문의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현경 (02)2289-4372